

장성에 881만명 방문... ‘1천만 관광시대’ 목전

전년비 4% ↑ ... ‘장성 방문의 해’ 효과
경비 지원 등 체감형 프로그램 인기
김한중 군수 “지역 관광 활성화 가속”

올해 장성 누적 방문객이 881만명을 기록하며 장성군이 추진하는 ‘1천만 관광시대’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19일 장성군 따르면 지난달까지 장성 누적 방문객 수는 지난해 847만명보다 약 4%(34만여명) 증가한 881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실적의 배경에는 군의 독자적인 관광 프로젝트 ‘2025 장성 방문의 해’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

2025 장성 방문의 해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장성으로 끌어오기 위해 기획된 연중 프로젝트로



올해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방문객 40만여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장성군 제공〉

지난해 말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선포식을 열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홍보대사에는 유튜브 구독자 241만명을 보유한 장성 출신 인플루언서 ‘감스트(김인직)’가 선

정돼 눈길을 끌었으며, 감스트는 광고 영상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며 ‘장성 방문의 해’ 홍보에 힘을 보탰다.

정식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사

업은 4·5월과 7·8월 두 차례 운영된 ‘쏟아한 장성 여행 경비 지원’으로, 타 지역 방문객이 숙박·식당·카페 등을 이용한 뒤 조건에 맞게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 최대 10만원, 2인 기준 최대 20만원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또한 ‘고객 맞춤형 관광택시’ 역시 호응을 얻었다. 3·5·8시간 코스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이용요금의 절반을 장성군이 부담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어 축령산을 찾은 등산객이 정상에서 하산 후 택시를 이용해 주차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품숲 투어 어게인’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밖에 관광 명소 스탬프 투어, 거리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광객의 체류 경험을 넓혔다.

올해 처음 장성에서 개최된 전남제전·전남장애인제전도 방문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양대 체전이 열린 4월에는 87만여명, 5월에는 103만여명이 장성을 찾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장성을 대표하는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황룡강 가을꽃축제’도 장성 방문의 해와 맞물려 상승효과를 냈다.

여기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방문을 기록한 백양사 등 가을 관광명소 활성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목표로 삼은 ‘1천만 관광시대’ 달성에 성큼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력 덕분”이라며 “2026년을 장성 관광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보성 오봉산 용추동·칼바위 일원 ‘명승’ 됐다

국가유산청, 대표 경승지 가치 인정

기암괴석·풍혈 어우러진 자연유산

탐방로 정비 등 보존·활용 본격화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이 조선 시대 고문헌에 기록된 경승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이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을 국가 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오봉산 용추동·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도’ 등 여러 고문헌에 ‘이름난 경승지’로 기록된 보성의 대표 자연 경관이다.

협준한 기암괴석과 풍혈 지형, 사계절 표정을 달리하는 용추동 계곡,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득량만 해안 풍광이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보성군 오봉산 돌담(위)과 칼바위.

〈보성군 제공〉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여제(祭)

가 봉행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종교·민속적 가치도 높다.

또 전통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석한 곳으로도 알려져 채석 흔적과 운반길 등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자연·문화·산업사적 가치가 중첩된 복합유산으로 평가된다.

보성군은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국가유산청·전남도와 협력해 학술조사와 연구, 보존·관리 계획 수립,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범위에서 탐방로 정비, 안전·편의시설 확충, 전문 해설·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변 관광지 연계 등을 통해 ‘명품 자연유산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의 명승 지정은 군민과 함께 지켜온 보성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결과”라며 “보성의 자연·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흥군 민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장흥군은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 달 17일까지 ‘민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7·12월까지 군청 행복민원과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 및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 부서에 전달해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서비스 관련 ▲항목 ▲과정 ▲결과 ▲만족도 등 4개 분야 9개 항목이다.

참여 방법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설문지를 이용하거나, 군 누리집 군민참여 설문조사 게시판 및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네이버 폼)으로 접속하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초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 기자



광양경제청, 신산업 전략 논의...투자유치 ‘속도’

소재·부품·에너지·수소 분야 간담회

광양만권 미래 산업벨트 도약 논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25년 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광양만권의 핵심 전략산업 동향과 정부 육성정책을 공유하며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소재·부품, 에너지, 신산업(수소 등)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산업 트렌드와 정책 방향을 짚고, 광양만권이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내 소재·부품, 에너지, 수소 산업 분야의 주요 전문가 11명이 참석해 광양만권의 산업 인프라와 잠재력, 투자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이 ▲국가산단 ▲항만 ▲철도 등 물류·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벨트로서 차세대 전략산업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광양경제청은 간담회를 계기로 소재·부품 산업의 공급망 강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수소·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충곤 청장은 “광양만권은 철강·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과 이차전지·수소 등 신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축이다”며 “앞으로도 산업별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찾는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고흥군 ‘2026 원예특작 지원사업’ 접수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과수·시설원예·노지채소 분야

고흥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과 경쟁력 있는 생산 환경 구축을 위해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사업은 과수·시설원예·노지채소 3개 분야에서 추진되며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병해충 예방, 기후 변화 대응, 생산비 절감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하며, 고흥군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

업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수 분야는 ▲과수 생산기반 구축 ▲틈새 유망과수 기반 조성 ▲조생복숭아 생산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설원예 분야는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기반 구축 ▲생산비 절감 지원 ▲노후 시설 자동화 등 9개 사업이 마련됐다.

노지채소 분야에는 ▲마늘·양파 흑색썩음균 해병 예방 ▲기후 변화 대응 재해예방 지원 등 9개 사업이 포함돼 총 24개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대상자는 2026년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되고 세부 요건과 지침은 고흥군 누리집(군청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 확정에 따라 일부 사업은 조정될 수 있다.

/주성학 기자

구례 한국압화박물관 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은 19일 “‘202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교육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아동 맞춤형 교재·교구 1천 세트를 제작하고 원광아린이집 교육생 10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유아교육프로그램은 지리산의 사계절 누름꽃을 활용한 체험활동과 산수유 명찰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내년 4월부터 관내·외 미취학

아동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압화박물관(061-780-2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한국압화박물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지난 18일 GS칼텍스·한국수산자원공단·여수YMCA 자원봉사자들이 여수 울촌면 반월마을 해역에서 염생식물을 식재하고 있다.

〈GS칼텍스 제공〉

GS칼텍스, 여수 울촌면서 염생식물 식재 봉사활동

민·관 협력...해양생태계 복원

탄소흡수 확대·지역상생 실천

GS칼텍스는 19일 “전날 여수 울촌면 반월마을 인근 해역에서 염생식물 식재 봉사활동을 진행해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충과 해양생태계 복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블루카본이란 해양과 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가

분)를 말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1일 GS칼텍스·한국수산자원공단·여수YMCA가 체결한 ‘블루카본 염생식물 조성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GS칼텍스 임직원과 신입 입턴사원, 여수YMCA 소속 아동 및 관계자,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 등 80여명의 참가했다.

이들은 여수YMCA 가사리생태교육관에서 블루카본 및 해양환경 교육을 받은 뒤, 반월마을 해역에 해후나물·통통마디 등 염생식물 씨

앗 5kg을 파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는 “염생식물은 염분이 많은 연안 토양에서 자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대표적 블루카본 생태계”라며 “이번 활동은 탄소흡수 확대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결합한 모범 사례며, 실질적인 탄소저감 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민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은 “GS칼텍스는 ‘I am your Green Energy’ 슬로건 아래 탄소흡수 확대와 지역 상생을 결합한 ESG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